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로버트 로웰의 고백시 연구



2010년 7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최윤경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 로버트 로웰의 고백시 연구

지도교수 윤 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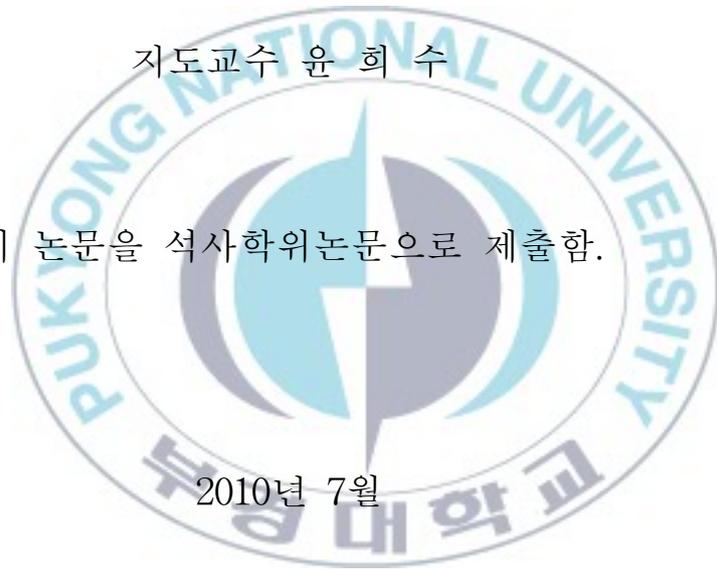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7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 문 학 과

최 윤 경



최윤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7월



주 심 문학박사 정 해 룡 (인)

위 원 문학박사 윤 희 수 (인)

위 원 문학박사 권 영 희 (인)

## 목 차

1장. 서 론 .....	1
2장. “과종기”의 풍경 .....	4
3장. 개인적 경험의 사회적 의의 .....	28
4장. 결 론 .....	49



A Study of Robert Lowell's Confessional Poetry:  
in *Life Studies*

Choi Yun Kyo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s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 tr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Robert Lowell's confessional poetry largely based on his *Life Studies*(1959), a poetic work assessed as one of the most remarkable literary achievement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World War II. This study is expected to show the contour of this work which results from his personal life and its response to the world he lives in.

Lowell's poems are labeled as "confessional" in that they deal with his personal life including his childhood memories, families, parents, marriage life, and even his mental problems in a straightforward way. Chapter 2 of this thesis has examined the poems which show "the seedtime" of his life such as "My Last Afternoon with Uncle Devereux Winslow," "Dunbarton," and "Grandparents." The poems also reveal his intimacy with his grandfather who substitutes for his father compensating his long absence. In "Commander Lowell," Lowell portrays his father after he is discharged from US navy because of the persistent request of his mother. Their unhappy marriage life has much influence on his eventful life revealed in "Waking in the Blue",

“Home After Three Months Away” and “Man And Wife.”

Lowell’s confessional poetry deals with the world he lives in as well as his personal life. He puts his personal experiences in the real social context of the US in the 1950s, which provides his poetry with social significance. Chapter 3 examines the poems which connect his personal life with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 Lowell confesses his experience in prison as a conscientious objector to the World War II. This experience expose his to various figures in prison, one of whom is Lepke. In this poem, Lowell implies that Lepke is associated with the poet himself in that they both are spending day by day meaninglessly “lost connection” to his past as “*Murder Incorporated’s Czar*” and “a fire-breathing Catholic C.O.” respectively.

“Skunk Hour” and “For the Union Dead” also criticize the immoral and materialistic US society in the 1950s. More confessional than “For the Union Dead,” “Skunk Hour” shows us a variety of figures in the fifties who live far from the Puritan ideals in the early history of America. In these poems of anti-establishment, Lowell uses his typical confessional mode to expose social and moral issues facing the US.

By examining major poems in *Life studies*, the thesis shows that there is a dual aspect in Lowell’s confessional poetry in that it deals with his personal experiences and reveals they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owlrd the poet finds himself in.

## I. 서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표적인 미국 시인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 1917-1977)이 1959년 출판한 네 번째 시집 『인생연구』(*Life Studies*)를 중심으로, 그의 고백시(confessional poetry)의 특징을 검토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고백시라는 말은 로웰의 시집 『인생연구』를 발표했을 때, 기존의 시 형식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비평가인 로젠탈(M. L. Rosenthal)이 이름 붙인 용어으로써, 난해성, 역설과 기지, 유기적 통일성 등 신비평이 선호하는 시의 특징에 충실했던 형식주의(formalism) 시 형식이다. 그리고 그의 고백적 문체는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를 위시한 당대의 비트 시인들에게 영향을 끼쳐 새로운 시의 스타일로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실비아 플라쓰(Sylvia Plath)나 앤 섉스톤(Anne Sexton) 등의 시를 대표하는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이후 고백시는 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주요한 현대 미국시의 표현 양식들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가 현대 미국시라 영어로 말할 때 이 범주에는 “modern American poetry”와 “contemporary American poetry”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포함되기도 한다. 엘리엇(T.S. Eliot)도 현대 시인이고 그의 『황무지』(*The Waste Land*)가 출판되었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미국 시인 로버트 크릴리(Robert Creeley)도 현대 시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현대 미국시는 전자가 아닌 후자의 범주를 포함한다. 현대 미국시인들을 제1세대의 시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포스트모던” 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용어는 편리한 구분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포스트모던” 시인들은 엘리엇이나 파운드(Ezra Pound) 등의 모더니즘 시인 또는 제 1세대 시인들을 바탕으로 부상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시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된 다양한 개념과 특징들과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세대 현대시인들에게 있어 최대의 과제는 올림푸스의 신들과도 같

은 제1세대 제 현대 시인들의 막강한 영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독자적인 세계와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차 대두되기 시작한 경향 중의 하나가 소위 고백시이다. 고백시는 로웰이나 스너드그라스(W. D. Snodgrass)를 비롯해 섹스톤, 플라쓰, 베리만(John Berryman) 등의 시인들에게서 두드러지지만, 차츰 제 2세대의 모든 시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낭만주의의 주관성과 감상주의에 반기를 들어 시의 몰개성성(impersonality)을 강조했던 엘리엇의 시학과는 달리 고백시는 시인의 경험과 개성(personality)을 강조함으로써 차별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이 같은 시의 개인화 현상(personalization)은 종전의 형식주의(formalism)에서 탈피해 시가 형식보다는 내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고백시가 등장하기 이전 미국의 현대시인들은 소위 “시적 자아”(Persona)를 통해 자신을 표현해 왔다. 시 속의 자아는 자신이라기 보다는 주로 상상 속의 자아였지만, 고백시는 바로 이 같은 시적 자아를 사용하는 대신 직접 시인 자신의 개인적인 또는 자서전적인 내용을 자신의 음성을 통해 직접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한다.

1937년 앨런 테이트(Allen Tate)와의 만남, 다니던 하버드 대학을 떠나 케년 대학(Kenyon College)으로 옮겨간 뒤 랜섬(John Crowe Ransom)과 함께 수학하게 된 것 등을 계기로 로웰의 시는 신비평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선호하는 압축, 역설, 기지 등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그 결과 로웰의 시에는 파운드와 엘리엇의 시와의 유사성이 자리잡게 되며, 또한 그의 시의 극적인 성격 역시 두 시인들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준다.

반면에 로웰은 두 시인과 차이점도 보여준다. 첫째, 배경에 있어, 파운드의 『휴 셀윈 모오벌리』(*Hugh Selwyn Mauberley*)에는 1차 대전 중에 전사했거나 참전하여 환멸을 느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황무지』에도 2차 대전 후의 혼란스러운 배경이 언급되고 있지만 로웰의 시는 이차대전 후인 1950년대의 정신적 상황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의 차이는 파운드와 엘리엇이 주로 런던의 생활을 다룬 반면 로웰은 보스턴의 생활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인 차이 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로웰의 시가 그들의 시 보다 더욱 노골적이며 자서전적

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개인의 이력을 고백적 맥락 속에 담아내는 특징과 더불어 그러한 개인적 경험을 당대의 현실과 연결시켜 문명비판적 성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고백적인 특징과 문명비판적 성향을 제 2장과 제 3장에서 드러내준다.

『인생연구』는 로웰의 네 번째 시집으로 현대 미국시의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이다. 로웰이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던 시절 의사의 권유가 계기가 되어 쓰게 된 『인생연구』는 유년 시절 외가 친지들과의 경험, 부모의 불화, 일상적인 부부간의 갈등, 가족간의 사랑의 부재뿐만 아니라 정신병역과 마약 복용 같은 격렬한 개인적 체험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고백한다. 논문의 제 2장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던 청장년 시절, 그리고 그가 재혼했던 엘리자베스 하드윅(Elizabeth Hardwick)과의 순조롭지 않은 결혼 생활 등에 대한 사적인 고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가 「웨스트가와 렘키의 추억」(“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에서 말했던 인생의 “파종기”(seedtime)(LS 85)의 문제들이 파악될 것이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개인적 체험을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당대의 미국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문명비판적 성향의 작품들을 검토할 것이다. 그 결과로 『인생연구』의 전체적인 풍경이 드러날 것이며, 또한 그의 고백시가 지닌 이원적 성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 II. “파종기”의 풍경

『인생 연구』(*Life Studies*)는 로웰의 실제 삶과 관련 인물들이 솔직하게 드러난 자서전적 작품이다. 작가는 시종 세심한 사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름, 날짜, 장소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독자는 이를 통해 로웰의 가족사와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그가 정신 질환을 겪는 성인 시절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생 연구』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자기 고백적인 요소가 강한 시들을 분석하여 그가 “파종기”(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라고 이름 붙인 유년의 성장 과정과 정신 질환을 겪기까지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려 한다. 따라서 이 장은 자서전적 면모가 강한 고백시들과, 자기 고백적 요소를 사회적 상황과 연결지어 문명비판적 성향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대별되는 『인생 연구』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한 이 연구의 전반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로웰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과 그의 가족에 대한 감정이 진솔하게 표현된 시는 「데버로 윈스로 삼촌과의 마지막 오후」(“My Last Afternoon with Uncle Devere Winslow”), 「던바턴」(“Dunbarton”) 그리고 「조부모님」(“Grandparents”)이다. 이 시들은 가장 순수하고 맑은 어린 아이의 시각으로 로웰의 유년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시들은 외갓집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1922년 외조부 여름 별장의 돌 베란다에서”라는 부제가 달린 「데버로 윈스로 삼촌과의 마지막 오후」(LS 59-64)는 시인의 유년기를 다룬 작품으로 로웰은 사물과 그에 대한 인상을 매우 세밀히 묘사하여 당시의 풍속도와 인물을 자세히 보여준다. 1922년 어느 날 오후 어린 로웰은 목 줄라 죽은 새를 걸어놓은, 에드워드왕조식 알프스산 뼈꾸기 시계를 본다. 시계가 똑딱거리듯 기억된 어린이의 의식과 그것을 기억하는 성인의 시각이 교차 반복된다. 이처럼 이중의식의 존재는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간의 연속성으로 하나의 통일된 의미 구조를 지닌다.

1922년의 어느 오후  
나는 돌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표류하는 석탄처럼 검은 결의 스크린을 통해 보며,  
토기톡, 토기톡  
나무 새가 걸려 있는  
알프스의 에드워드풍 뼈꾸기 시계의 무거운 발소리.

Once afternoon in 1922,  
I sat on the stone porch, looking through  
screens as black-grained as drifting coal.  
Tockytock, tockytock  
clumped our Alpine, Edwardian cuckoo clock,  
slung with strangled, wooded game.

이 시의 둘째 부분(52-62행)에서 “I was five and half”라고 정확한 나이를 명시하여 자서전적 면모에 구체성을 더 한 뒤에, 로웰은 세번째 부분(63-89)에서 외조부의 여동생 사라 스타크 윈슬로(Sarah Stark Winslow)를 등장시키면서 어린 시절 그의 주변 인물들을 소개한다. 그녀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한 여인(pianist manque)이다. 그녀는 피아노곡 *Samson et Delila*를 연주하면서, 시누이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dummy piano)로 연습한다. 그러나 그녀는 정작 피아노 연주회 날 나타나지 않아 큰 물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음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 여생을 좌절의 시간 속에서 보낸다.

매일 아침 제철이 아닌 여름 죽음처럼  
「심포니 홀」의 그랜드 피아노에서 연습하였다-  
그곳의 별거벗은 희랍 조각들은  
자주 빛 천을 덮었다. 성주간의 성인들처럼 . . .

공연 당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Each morning she practiced  
on the grand piano at Symphony Hall,  
deathlike in the off-season summer-  
its naked Greek statues draped with purple  
Like the saints in Holy Week . . .  
On the recital day, she failed to appear.

이 시의 넷째 부분은 예전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사는 외삼촌의 일면을 보여준다. Hodgkins라는 악성 임파종으로 29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삼촌을 보며 로웰은 공포심을 느낀다. 단순히 다섯 살 반짜리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치 채지 않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unseen and all-seeing) Nero 황제의 아버지 아그리피노(Agrippino) 2세를 자처 하면서, 로웰은 어린 시절 자신이 목격한 주위의 인물들을 생생히 기억해낸다. 이 시의 후반부는 앞에서 등장했던 목 졸린 새를 걸쳐놓은 뼈꾸기 시계, 두꺼비를 삼켜 마비되어버린 강아지(49-50행), 검은 흙과 생석회 등으로 죽음의 이미지가 연속되면서 삼촌의 죽음과 외가의 멸망을 예고한다.

불치의 호츠킨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내 손은 따스하다가 차가워졌다  
흙과 석회 더미에  
검은 더미 하얀 더미에...  
겨울이 오면  
테버로 삼촌은 한 가지 색으로 혼합되리라.

He was dying of the incurable Hodgkin's disease...  
My hands were warm, then cool, on the piles  
of earth and lime,

a black pile and a white pile...

Come winter,

Uncle Devereux would blend to the one colour.

뉴 햄프셔(New Hampshire)주의 도시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던바턴」(LS 65-67)은 테버로 삼촌의 사망 후의 외갓집을 묘사하고 있다. “외할아버지는 인간사회보다 손자의 안개에 갇힌 고독을 감미롭게 여기셨다”(My Grandfather found his grandchild's fogbound solitudes sweeter than human society.)로 끝나는 이 시에서 로웰은 당시 태평양에서 해상 근무 중이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던 외할아버지를 추억한다.

테버로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아직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농장관리인 맥도날드씨와 운전기사 카알과 할머니마저  
할아버지를 가리켜 「너의 아버지」라고 말함은  
자발적이고 적절해 보였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해마다 가을이면 보스턴을 떠나  
던바턴의 가족 묘지로 갈 때  
할아버지는 몸소 운전하셨다-  
키를 잡은 제독처럼.

When Uncle Devereux died,  
Daddy was still on sea-duty in the Pacific,  
it seemed spontaneous and proper  
for Mr. MacDolald, the farmer,  
Karl, the chauffeur, and even my Grandmother  
to say, 'your Father.' They meant my Grandfather.  
He was my Father. I was his son.  
to the family graveyard in Dunbarton,

he took the wheel himself-  
like an admiral at the helm.

해마다 늦가을 보스턴에서 던바튼으로 조상 성묘를 하러 갈 때, 외할아버지는 직접 핸들을 잡고 마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해군 제독처럼 위세 당당하게 차를 몬다. 이런 모습의 외할아버지를 로웰은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동경하는 것이다. 로웰은 때로 자신을 외할아버지의 침대에 쪼그린 외할아버지의 정부(paramour)에 비유할 정도로 은밀한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외할아버지에 대한 소중한 기억을 떠올린다.

아침에는 할아버지 침대에  
정부처럼 쪼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시끄러운 나무 스토브 주위를 둘러보시는 동안.  
할아버지는 감미롭게 여기셨다  
인간사회보다 손자의  
안개에 갇힌 고독을.

in the mornings I cuddled like a paramour  
in my Grandfather's bed,  
while he scouted about the chattering greenwood stove.  
My Grandfather found  
his grandchild's fogbound solitudes  
sweeter than human society.

타인과의 교제보다도 손자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던 외할아버지의 죽음은 로웰에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는 「조부모님」의 후반부에서 “할아버지! 저를 맞아 안아주시고, 소중히 여겨 주소서!”(Grandpa! Have me, hold me, cherish me!)(31행)라고 말하며 슬픔과 그리움을 토로한다. 외가 식구들의 불행했던 삶과 죽음을 기록한 데 이어 로웰은 부모의 희망을 지켜보고 묘사함으로써 그가 겪게 될 실의와 좌절의 원인들을 조금

씩 구체화하기 시작한다.

『인생 연구』의 제2부 「리비어 91번지」(“91 Revere Street”)는 로웰 자신의 소년기를 다룬 산문으로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해군에서 퇴역하도록 강요하는 경위를 담고 있는데 「리비어 91번지」의 내용을 73행의 시로 압축한 것이 바로 「로웰 중령」(“Commander Lowell”)(LS 68-70)이다(Rudman, 71). 이 시는 그의 아버지가 해군 중령으로 집을 떠나 있었을 당시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시인의 회상에서 시작된다.

로웰은 아버지가 해군 장교직을 사임하게 되면 브리멀(Brimmer) 학교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위협해 진다고 보지만, 이 시의 18행부터 20행에서는 해군 장교 아버지를 가진다는 것은 매타포이세트(Matapoissett)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해군장교를 아버지로  
둔 것은 ‘매트’의 여름 휴양지에서  
떠들어 널 사실은 아니었다.

Having a naval officer  
for my Father was nothing to shout  
about to the summer colony at ‘Matt’.

제 3부의 포드 매도우 포드(“ Ford Madow Ford ”)에서처럼 아버지는 골프를 치지만 아무리 멋진 골프 복장을 갖춰 입었어도 제대로 치지 못하자, 친구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는 로웰의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된다.

골프장에 나타나는 그는  
전혀 ‘진지하지’ 않았다

.....

퍼팅 네 번 만에 공을 넣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이 사람이 골프를 치려면 정확히 쳐야지.’  
친구들은 그를 ‘해군’으로 치부하고

그의 스포츠를 향해라고 생각했다.

He wasn't at all 'serious',  
when he showed up on the golf course,  
.....  
and took four shots with his putter to sink his putt.  
'Bob,' they said, 'golf's a game you really ought to know how  
to play,  
if you play at all,'  
They wrote him off as 'naval',  
naturally supposed his sport was sailing.

로웰은 민간인으로 탈바꿈한 아버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 시에서 아버지의 최초의 충돌의 근원이 밝혀진다. 그의 아버지의 오랜 부재는 그의 어머니와 그로 하여금 외로운 삶을 살도록 했고 아버지와 남편으로써의 빈 곳은 달랠 수 없는 좌절된 야망으로 박혀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히스테리와 미혼녀의 두려움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Her voice was still electric/ with a hysterical, unmarried panic.”)

어머니가 홀로 잠자리에 들어,  
메닝거를 읽고  
점점 의심이 많아지는 동안  
아버지는 반항적으로 변했다.

While Mother dragged to bed alone,  
read Menninger,  
and grew more and more suspicious,  
he grew defiant.

이 시에서 묘사된 그의 어머니는 플로베르(Flaubert)의 엠마 보바리(Emma Bovary)와 닮아있다. 로웰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열정을 독서로 대체하고, 엠마는 낭만적 상상력을 불태우며, 남편에 대한 그녀의 경멸감을 자아내는 소설들을 읽는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다정한 아버지는 6만 달러를 “겁쟁이 투기”(piker speculations)에 날려버리는 호탕한 기질을 드러낸다.

밤마다  
램프의 공허한 불빛 속에서  
그라프 거리에 미끄러뜨렸다 -  
겁쟁이 투기! 삼년 동안  
6만 달러를 날렸다.

모든 이에게 미소 짓는 아버지  
한때 성공적이었던 보스턴 지배계층  
집단 속에 길을 잃을 정도로,  
이미 1928년에  
기름을 때도록 개조한 집을 소유했다 세인트 마야크 가  
학교는 새로 꾸며진 . . . 주된 효과는  
「베르사이유만큼 긴」 객실은  
귀리로 우툴두툴하게 만든 천장은 푸른 빛.  
한때  
열아홉, 동기생 중 최연소 사관이었던 그는  
양자강에 출동한 ‘두목’ 이었다.

Night after night,  
*'a la clart 'e d 'eserte de sa lampe,*  
he slid his ivory Annapolis slide rule  
across a pad of graphs -  
piker speculations! In three years

he squandered sixty thousand dollars.

Smiling on all,  
Father was once successful enough to be lost  
in the mob of ruling-class Bostonians.  
As early as 1928  
he owned a house converted to oil,  
and redecorated by the architect  
of St. Mark's School . . . Its main effect  
was a drawing room, 'longitudinal as Versailles',  
its ceiling, roughened with oatmeal, was blue as the sea.  
And once  
nineteen the youngest ensign in his class,  
he was 'the old man of a gunboat on the Yangtze.

로웰은 이 시의 마지막 12행에서 아버지의 평생에 몇 안 되는 영광의 순간들을 열거한다. 아버지가 최연소 해국 사관학교 졸업생이었다는 사실, 의화단 사건, 노일전쟁 직후인 1906년 양자강에 출동한 미군함의 노련한 사관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주식 변동도 아나폴리스(Annapolis) 해사에서 사용하던 상아 줄자로 그래프를 작성하여 역설적이지만 해군장교로서의 긍지를 죽을 때까지 지켰다는 사실 등을 통해서 로웰은 실수나 허영심과 대조되는 영웅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아버지의 손실을 보상 받으려한다.

아버지의 사망 직전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 「베버리 파암즈의 마지막 오후」 ("Terminal Days at Beverly Farms")(LS 73-74)에서 로웰의 아버지는 좋아하는 버어번을 마시면서 과거 해군시절을 회상한다.

베버리 파암즈에는 큼직하고 불편한 큰 돌이  
정원 가운데에 두드러져 있었다 -  
들쭉날쭉한 일본식의 풍취.

‘구식’의 버어번을 마신 후  
구리 빛으로 그을고 쾌활하고 너무 혈색이 좋은 것 같은  
아버지는 중령 근무를 하듯이 몸을 흔들었다  
별 모양의 랜턴 아래 -  
지난 6월 생일선물.  
타원형의 로웰의 미소를 짓고

At Beverly Farms, a portly, uncomfortable boulder  
bulked in the garden's centre -  
an irregular Japanese touch.  
After his Bourbon 'old fashioned,' Father,  
bronzed, breezy, a shade too ruddy,  
swayed as if on deck-duty  
under his six pointed star-lantern-  
last July's birthday present.  
He smiled his oval Lowell smile.

“타원형의 로웰식 미소” 뒤에는 현재의 불행을 과거의 추억으로 보상받으려는 아버지의 쓸쓸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다. 로웰은 아버지를 “구리 빛으로 그을고 쾌활하고 너무 혈색이 좋은” 인상으로 묘사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를 인정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건강하게 다듬어져” “아침마다 여덟 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던 아버지는 갑자기 죽음을 맞는다.

아버지의 사망은 급작하고 유순했다.  
그의 시력은 여전히 각각 2.0  
아침 내내 근심스레 웃더니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은  
‘몸이 불편해’

Father's death was abrupt and unprotesting.  
His vision was still twenty-twenty.  
After a morning of anxious, repetitive smiling,  
his last words to Mother were:  
'I feel awful.'

이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의 사후의 침실을 들여다봄으로써 아버지의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가 「아버지의 침대」(“Father's Bedroom”)이다. 「로웰 중령」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장이 바다같이 푸르게 칠해졌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시에서도 로웰의 부친 사망 후에 그의 침실을 보면, 침대 깔개, 커튼, 키모노, 우단 끈이 달린 중국 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이 “sea change”는 일으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바다와 해군에 집착한 아버지의 속내를 반영한다.

아버지의 침실에는  
침대 덮개에 펜 글씨처럼  
가는 푸른 실,  
푸른 점들로 덮혀있는 커튼,  
푸른 기모노,  
푸른 무명 끈이 달린 중국 덧신들.

In my Father's bedroom:  
blue thread as thin  
aspen-writing on the bedspread,  
blue dots on the curtains,  
a blue kimono,  
Chinese sandals with blue plush straps.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세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 작품은 15행으로 된

“For Sale”이다. 첫 5행에서는 일년 밖에 살지 못했던 보잘것없는 장난감 같은 집, 좋지 않았던 부부의 관계 때문에 집안의 살림도 아무렇게나 꾸며놓은 베버리 파암즈(Beverly Farms)의 집은 아버지가 사망한 달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방매가」 (“For Sale”)(LS 90)로 위탁되었다.

방탕한 증오심으로 꾸민  
보잘것 없는 장난감  
겨우 한 해를 살았다 -  
베버리 파암즈의 아버지 별장은  
돌아가신 달에 내 놓았다.

Poor sheepish plaything,  
organized with prodigal animosity,  
lived in just a year -  
my Father's cottage at Beverly Farms  
was on the market the month he died.

로웰의 어머니는 남편이 생존하여 있을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메릴 무어(Merril Moore)와의 염문도 있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미망인으로서의 삶에 불안해하는 어머니를 로웰은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텅 비고, 개방적이고 친근한  
타운하우스의 가구들은  
장 의사가 다녀간 후  
운송업자가 오기만을  
고대하는 기색이었다.  
여든까지 혼자 살  
준비와 두려움에서  
어머니는 창가에서 몽상에 잠겼다  
행선지를 한 정거장

지나친 승객처럼.

Empty, open, intimate,  
its town-house furniture  
had an on tiptoe air  
of waiting for the mover  
on the heels of the undertaker.  
Ready, afraid  
of living alone till eighty,  
Mother mooned in a window,  
as is she had stayed on a train  
one stop past her destination.

비록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남편이 죽자 어머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로웰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몽상에 잠겨 마치 목적지를 한 정거장 지나친 여행객에 비유한다. 여기서 사용된 “moonied”는 죽음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moaned”와 대조되면서 남편에 죽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남다름을 암시한다.

「라팔로에서의 항해」 (“Sailing Home from Rapallo”)(LS 91)는 남편이 사망한지 4개월 후인 1954년 2월에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이탈리아의 라팔로(Rapallo)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전보가 로웰에게 전달되는 내용을 다룬다. 이 전보는 보스턴의 옛날 주소에 잘못 전달되고 나흘이 지연되어 로웰이 체류하던 신시내티까지 배달되는데, 로웰은 신시내티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 런던, 파리를 경유하여 우여곡절 끝에 라팔로에 도착하였으나, 어머니는 이미 한 시간 전에 또 다른 심장 마비를 일으켜 운명하고 만다. 4년 전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로웰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의 간호사는 이탈리아어 말밖에 몰랐다,

그래도 이십 분이 지나자 어머니의 마지막 주를 짐작 할 수 있었고  
눈물이 두 뺨을 적셨다. . .

Your nurse could only speak Italian,  
but after twenty minutes I could imagine your final week,  
and tears ran down my checks. . .

소박하게 살았던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죽은 후에도 어머니는 과리의  
앵발리드(Invalides) 사원에 안치된 나폴레옹(Napoleon)의 관을 본 따서  
만든 관으로 선창의 일등실에 안치되어 귀향한다. 14행에서 35행에 이르  
는 이 시의 셋째 부분에서, 뉴 햄프셔 주 던바턴에 있는 로웰의 가족 묘  
지와, 어머니의 친정인 윈슬로 가문과 스타크 가문의 가족묘가 나온다.  
이 묘지는 앞서 언급된 시 「던바턴」에서 어린 로웰이 외조부와 함께  
묘지의 낙엽들을 함께 갈퀴로 끌어 모아, 모닥불을 피운 적이 있던 곳이  
다.(LS 66) 유해를 호송하는 배의 승객들이 갑판에서 지중해의 태양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장면이 묘지로 바뀌는 것은 극적이다. 묘지 주변의 17  
세기, 18세기의 식민시대의 묘비들에 비해서, 최근의 풍화작용도 받지 아  
니한, 분홍색 결이 있는 대리석 묘비 밑에 묻혀 있는 아버지야말로, 이런  
묘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서 유일한 “비역사적  
인”(unhistorical) 영혼으로 묘사된다. 로웰은 최종연에서 어머니의 주검  
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어머니의 관에 새겨진 웅장한 글자들 속에  
로웰은 로블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시체는  
이태리 은박지 속에 검은 빵처럼 싸여있었다.

In the grandiloquent lettering on Mother's coffin,  
*Lowell* had been misspelled *LOVEL*.  
The corpse

was wrapped like *panetone* in Italian tinfoil.

어머니의 관 이름은 Lowell이 아니고 LOVEL로 잘못 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Lowel로서 1자 한자가 빠져 있었다(Hamilton 203). 이태리의 시에나(Siena)에서 생산되는 판포르테(panforte)로 알려진 검은 빵이, 이 시에서는 파네토네(Panetone)으로 변형된다. 어머니는 빵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박지에 싸인 케이크처럼, 따뜻한 지중해의 나라에서, 동토인 2월의 뉴 잉글랜드(New England)로 돌아오는 것이다. 꿈 많은 여인이 겪은 실의와 좌절의 인생은 잘못 이름 붙여진 채 상품처럼 축소된 싸늘한 주점으로 종말을 맞고 만다.

"During Fever"에서 로웰은 어린 딸 해리어트(Harriet)이 밤새 고열로 아파하는 모습을 계기로 시선을 과거로 돌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떠올린다. 로웰은 "흐린 백열등 같은 머리의 아버지"(her dim-bulb father)에게 어린 딸이 빼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작은 침대에 누워 "미안해요"(Sorry)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를 "병든 도시"(sick city)로 데리고 온 자신을 자책한다. 처녀 시절 구혼자들이 몰려들던 어머니에게 아버지와의 결혼은 불행의 시작이었고, 혐오스러운 남편의 직업을 연상시키는 바다를 일부러 피해 "어머니의 침실이 바다를 외면할 정도"(your master-bedroom/ looked away from the ocean)로 심했던 부모의 불화와 갈등이 은연중에 어린 딸에게 대물림 되어 열병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로웰은 미국이 일본과 독일의 무고한 시민에게 무차별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 항의하여, 양심적 병역 기피자가 되었고, 당시의 대통령인 루즈벨트(Roosevelt)에게 편지를 보내어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재판에서 1년 1일 징역형을 언도 받아, 교도소에서 5개월 반 복역 후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러한 경험을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부모의 불화도 더해져 로웰은 결국 조울증(manic-depressive illness)을 앓게 되었다. 교도소 출옥 후 반년 만에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로웰이 1949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광기상태를 경험하였고 발작

이 극심할 때에는 1년에 보통 한번씩 규칙적으로 입원하기도 한다. 결국 그의 광기는 로웰을 설명하는 있어서 언제나 수반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Spears, 55-2). 정신병원과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과 사람들을 환기시키는 시들은 「푸름 속에 깨어나」(“Waking in the Blue”), 「석 달 후의 귀가」(“Home After Three Months Away”) 이다(Hobsbaum 86).

1957년에 워싱턴과 뉴욕에서 순회 시 낭독회를 가진 뒤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 때문에 로웰은 그 해 12월에 보스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는데 「푸름 속에 깨어나」는 그러한 경험이 소재가 된 시이다. 첫 연에서 카톨릭 계통의 매린(MaLean)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줄음이 오고 어지러운 머리를 억지로 깨워가면서 리차드(I. A. Richards)의 의미의 의미(*The Meaning of Meaning*)를 공부하려 애쓰는 보스턴대학의 2년생인 야간 조수가 등장한다.

하늘처럼 푸른 날들은  
나의 고통스러운 푸른 창을 더욱 황량하게 한다.  
석화가 된 잔디밭을 까마귀들이 어슬렁거린다.  
부재여! 재 심장은 켕긴다  
바야흐로 작살을 던지려는 것처럼.  
(여기는 ‘정신적으로 아픈’ 이들을 위한 수용소이다.)

Azure day  
makes my agonized blue window bleaker.  
Crows maunder on the petrified fairway.  
Absence! My heart grows tense  
as though a harpoon were sparring for the kill.  
(This is the house for the ‘mentally ill’)

「하늘처럼 푸른 날」(LS 81-82)에 세상 사람들과 공존해야 하지만 정신병원에서 이 멋진 하루를 허송해야 한다는 쓰라림과 세상일에 참여하

지 못하고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괴로움이 “부재여!”라는 말 속에 집약된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긴장감은 곧 날아갈 작살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이 시의 끝 행에서는 “잠겨진 면도기”(a locked razor)를 쥐고 있는 모습에 비유된다.

11-32행에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한 스탠리(Stanley)와 바비(Bobbie)라는 작가들이 나온다. 예전 전국 미식축구대회에 풀백으로 출전했던 스탠리는 지금 60세지만, 20세의 신체를 지닌 채 해표 같은 유연성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리고 바비는 하버드 대학의 특별 씨클인 prtcellion 클럽 회원이었다. 스탠리와는 달리 신체적 관심은 없고, 그의 별거숭이 몸은 밀향 고래처럼 몽뚝하다. 시간의 경과를 부정한다는 것은 심리적 후퇴성, 환상, 광기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로 이 두 사람을 출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로웰은 이들을 33행에서 “젊어서 골화되어 버린 이 의기양양한 허세의 인간들”(These victorious figures of bravado ossified young.)로 단정 짓는다. 마지막 연은 아침을 먹고 난 후 몸무게가 200파운드에 이른 로웰이 위풍당당하게 복도를 활보한 모습으로 시작된다.

푸짐한 뉴잉글랜드 조반을 먹은 후  
오는 아침 내 체중은  
이백 파운드. 프랑스 선원의  
목이 긴 메리야스 스웨터를 입고  
위세 당당히  
강철로 된 거울 앞을 활보하며  
불안한 미래가 친숙해 짐을 본다  
내 나이 두 배에 내 체중은 반인  
이 순종 정신병 환자들의  
쪼들린 토종적(고유의) 얼굴 속에.  
우리는 모두 예전의  
저마다 잠겨진 면도기를 쥐고 있다.

After a hearty New England breakfast,  
 I weigh two hundred pounds  
 this morning. Cock of the walk,  
 I strut in my turtle-necked French sailor's jersey  
 before the metal shaving mirrors,  
 and see the shaky future grow familiar  
 in the pinched, indigenous faces  
 of these thoroughbred mental cases,  
 twice my age and half my weight.  
 We are all old-times,  
 each of us holds a locked razor.

나이는 두 배나 많지만 체중은 절반밖에 되지 않은 “순종 정신병환자들”의 일그러진 얼굴들 사이에서, 손목을 그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로 만들어진 거울 앞에 선 로웰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모인 이들은 고통의 예민성과, 자살과 살인의 상징인 면도칼을 가슴에 지니고 있다. 젊어서 석화된 허세의 스탠리와 바비라는 작가들을 등장시켜 군중 속에서 불안정하지만, 정착된 삶을 살아볼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로웰의 체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석 달 후의 귀가」(“Home After Three Months Away”)(LS 83-84)는 매린 병원 생활 3개월 후 잠시 주말을 이용해서 집에 다녀오는 동안에 쓰기 시작한 시다(Hamilton, 253). 정신병원에서 돌아와,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Kramer 189)

40행으로 된 이 시에서 로웰은 교도소 생활에서 풀려 나와 집에 있다가, 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약물치료, 전기쇼크치료, 정신분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 경험을 취급한다.

3개월, 3개월!

이제 리처드는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왔는가?

기쁨으로 보조개가 생긴  
내 딸은 욕조에서 접견한다.  
서로의 코를 비벼대며,  
끈적거리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준다 -  
없어진 것이 없음을 말해 준다.  
나는 이제 마흔이 아니라,  
마흔하나이지만, 허비한 시간은  
어린이의 장난, 13주 후에도  
나의 딸은 여전히 자기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에게 면도하라고 한다.

Three months, three months!  
Is Richard now himself again?  
Dimpled with exaltation,  
my daughter holds her levee in the tub.  
Our noses rub,  
each of us pats a stringy lock of hair-  
they tell me nothing's gone.  
Though I am forty-one,  
not forty now, the time I put away  
was child's-play. After thirteen weeks  
my child still dabs her cheeks  
to start me shaving.

위 부분은 로웰이 3개월간의 악몽 같은 정신병원에서의 경험을 상기한 후, 셰익스피어 희곡의 주인공인 리차드를 통하여 그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묘사된 면도의 이미지는 시인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Cosgrave 143-144). 시인은 다정한 가정의 온정을 묘사한 후에 낭비된 삶을 해학적 어조로 기술하는데, 이는 자신의 후회와 자성의 태도를 암

시한다. “(저 튜립처럼) 나는 계급도 지위도 없다. (정신병이) 치유되었다고 해도, 전기쇼크치료에 묶이어, 맥이 빠지고 형편이 없다” 라며 이 시가 끝난다. 이는 병원생활 중의 치료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었는가 라는 사실이 마지막 두 줄에 여실히 나타나, 로웰의 과거와 미국의 과거가 광기와 절망 속에 종결되어 있는 느낌(Azelrod 121)을 주어, 로웰의 독자에게 끝없는 동정심을 쏟게 한다.

회복기의 나는 빈둥빈둥 놀고 있다.

저기 삼층 아래에서

관 길이의 흙을 손질하는 일꾼

수평의 튜립이 일곱 송이 피어난다.

열두 달 전만 하더라도

가문이 분명한

수입된 네덜란드인. 이제는

해초와 다를 바 없다.

늦봄의 눈으로 무성히 자라

또 한 해의 증대되는 눈덩이를

견뎌 낼 것 같지 않다.

계급도 지위도 없다

치료된 나는 바삭 타고 진부하고 풀이 죽었다.

Recuperating, I neither spin nor toil.

Three stories down below,

a choreman tends our coffin's length of soil,

and seven horizontal tulips blow.

Just twelve months ago,

these flowers were pedigreed

imported Dutchmen, now no one need

distinguish them from weed.

Bushed by the late spring snow,  
they cannot meet  
another year's snowballing enervation.

I keep no rank nor station.  
Cured, I am frizzled, stale and small.

삼층 아래에 허드레 일꾼이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화초를 가꾸었더니, 수직으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퍼져 피는 흥측한 튤립 꽃이 일곱 송이나 피어난다.. 일년전만 해도 이 튤립은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한 족보가 뚜렷한 품종이었는데, 이제는 퇴화해서 잡초와 다를 바가 없다. 튤립이 퇴화되어 잡초와 다를 바 없게 된 사실과, 로웰 자신의 옥살이, 정신병원 입원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패가망신했다는 사실이 대조된다. 튤립들은 또 앞으로 한 해 동안 닥칠 산더미 같은 눈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처럼 회복기에 빈둥빈둥 놀면서 “계급도 지위도 없이” 가문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는 로웰의 자책감으로 이 시는 끝난다.

앞에서 살펴 본 시들에 소개된 부모의 불화는 로웰의 결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과 아내」(“Man and Wife”)(LS 87)와 “결혼의 고독한 폭력”(Malkoff 196)을 주제로 한 「결혼 생활의 비애」 “To Speak of Woe That Is in Marriage”(LS 88)에는 1949년부터 1972년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로웰의 둘째 부인 Elizabeth Hardwick과의 순탄치 않은 관계가 드러난다. 28행으로 구성된 「남편과 아내」는 진정제를 복용하고 어머니의 침대에 묘사하면서 누운 이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밀타운으로 길들여진 우리는 어머니 침대에 누웠다;  
물감색의 뜨는 해는 우리를 별경계 물들인다  
환한 햇볕 속에 황금빛 침대 기둥이 번쩍인다  
거의 이오니소스처럼.  
드디어 말보로가의 나무들은 초록색이 되고

우리의 목련 꽃들은 아침에 개화한다  
살기에 찬 닳새 동안의 백색으로,

Tamed by Miltown, we lie on Mother's bed;  
the rising sun in war paint dyes us red;  
in broad daylight her gilded bed-posts shine,  
abandoned, almost Dionysian.  
At last the trees are green on Marlborough Street,  
blossoms on our magnolia ignite  
the morning with their murderous five day's white.

6-7행에 로웰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목련 꽃이 나온다. 이 목련 꽃은 제 2부에서 목련 꽃이 필 때면 살기등등해져 친구를 때려서 코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LS 31), 여자 가정부가 돼지 비계를 목련나무 가지에 달아 놓고 겨우내 참새들의 먹이가 되도록 한다는 것(LS 83), 이 시에서는 열정이라고는 거의 없는 말보로 가에 5일 동안 살기등등한 흰 목련 꽃이 되어 있다는 것 등과 연결되면서 점차 정도가 심해져 가는 결혼생활의 불화를 가리키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고 있다.

로웰이 하드윅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20대의 가냘프고 명석한 여성이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해묵은 장광설”을 늘어놓는 신경질적 여인으로 변해버렸다.

이제 12년 후 당신은 등을 돌렸다  
잠이 안 와 어린애처럼  
베개를 안고.  
당신의 해묵은 장광설은 -  
다정하고 신속하고 가차 없이 -  
내 머리에 쏟아진다 대서양처럼.

Now twelve years later, you turn your back.

Sleepless, you hold  
you pillow to your hollows like a child,  
your old-fashioned tirade -  
loving, rapid, merciless -  
breaks like the Atlantic Ocean on my head.

진정제를 복용하며 부인과 함께 돌아가신 어머니 침대에 누워 있느니, 성교를 할 욕정도 일어나지 않는다(Hobsbaum 190). 권태기에 접어든 이 부부는 부모대의 업보가 자식에게 전해진 것처럼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한다.

원래는 「남편과 아내」의 초고인 홀리 매트리모니(“Holy Matrimony”)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로웰이 이를 따로 떼내어서 독립적인 작품으로 만든 결혼 생활의 비애」는 로웰의 여타의 작품들과는 달리 1인칭 화자가 아닌 타락하고 호색적인 주정뱅이 남편을 가진 여인의 고백을 통해 로웰의 순조롭지 않은 결혼 생활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이다.

‘무더운 밤은 침실 창들을 열어 놔두게 한다.  
목련 꽃이 핀다. 삶은 발생하기 시작한다.  
꼴이 난 남편은 집안의 논쟁을 중단하고  
창녀를 찾아 거리로 나간다  
자유롭게 면도기 날을 따라간다.

‘The hot night makes us keep our bedroom windows open.  
Our magnolia blossoms. Life begins to happen.  
My hoped up husband drops his home disputes,  
and hits the streets to cruise for prostitutes,  
free-lancing out along the razor’s edge.

매번 술에 취해 새벽 다섯 시쯤 비틀거리며 집으로 와서 동침하자고 졸라대는, 남편의 추잡한 성욕에 그의 아내는 진저리를 내지만 그의 폭력

적이고 괴상한 행동에 못 이겨 결국 동침을 하게 되고 끝내는 언쟁을 벌인다. 극적 독백 형식을 통해 객관화되고 있지만 술에 만취되어 절제 없는 생활의 연속과 조울증, 그리고 “면도기 끝”으로 암시되는 자살 충동으로 시달리는 로웰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생 연구』에 수록된 시들 가운데 로웰의 어린 시절과 외가, 부모, 정신병원의 경험, 그리고 그의 부부에 관한 시들을 취급하는 작품들을 통해 유년기부터 그의 개인적 삶의 질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탐색해보았다. 이를 통해 이른바 “과중기”의 문제점들이 그에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단순히 개인적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그가 사는 시대상과 연결 지어 보편성과 문명비판적 차원을 획득하는 작품들을 검토할 것이다.



### III. 개인적 경험의 사회적 의의

『인생 연구』에 수록된 로웰의 시는 개인적인 경험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합하려는 노력 속의 미국 역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로웰은 개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20세기 산업사회 문명의 모습을 초기 미국 역사를 재구성하여 계시록적으로 제시한다. 즉 현대 미국의 정신적 타락상을 초기 뉴잉글랜드 역사를 통해 객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삶을 인간 보편의 삶으로 확대 시켜나가는 작품들을 검토하여 『인생 연구』의 전체상을 파악하려 한다.

「웨스트 스트리트와 랩키의 추억」(“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LS 86)는 중년에 접어든 로웰이 병역기피로 유치장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교도소 내의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의 작품이다. 이 시와 둘째, 셋째 시는 1957년 의 겨울과 봄에 보스턴에서 일어날 것을 다루고 있다(Rudman 121-2). 이 시의 첫 4행에서 로웰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1842-1910)의 “결코 열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말보로 가”(hardly passionate Marlborough Street)를 인용하면서 현실에 순응하여 단조로운 삶을 사는 자화상을 보여준다.

화요일에만 강의를 하는 나는  
매일 아침 세탁기에 갓 씻어낸 잠옷 바람으로 책을 파며  
보스턴의 ‘결코 열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말보로 가’의  
집 한 채를 독차지하고 있다.

Only teaching on Tuesdays, book-worming  
in pajamas fresh from the washer each morning,  
I hog a whole house on Boston's  
'hardly passionate Marlborough street',

로웰은 마치 그가 예전 보스톤의 조상과 재결합한 것처럼, 보스톤의 말보루(Marlborough)가에 살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대학 강의를 나가며,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책에 빠져 살아감을 고백적 문맥을 통해 드러낸다. 이어서 로웰은 1950년에서 54년까지는 완전히 지성인이 풀이 죽은 “진정제를 맞은 50년대” 미국의 풍경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다. 1950년 2월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Joseph MaCarthy)(1908-1957)는 국무성 내부의 공산주의자 이 백 여명추방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는 소위 적색분자 숙청(“Red Purge”)를 표방하여 많은 반대파를 매장했고, 반대파 공격시에도 근거가 희박한 인신 공격적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로 인해 1950년 초반에 “정적 또는 반대파의 정치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극단적인 반공주의”라는 의미를 가진 매카니즘(McCarthyism)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처럼 지성인들의 양심적인 주장이 억압받는 50년대 미국의 풍경을 로웰은 “진정제를 맞은 50년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진정제를 맞은 50년대,  
내 나이 마흔, 내 파종기를 후회하라?  
한 때 불을 내뿜는 카톨릭 병역기피자  
국가와 조울증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큰 소리를 친 뒤  
머리카락에 마리화나의 소용돌이가 서린  
흑인 아이와 함께

These are the tranquilized *Fifties*  
and I am forty. Ought I to regret my seedtime?  
I was a fire-breathing Catholic C.O.,  
and made my manic statement,  
telling off the state and president, and then

sat waiting sentence in the bull pen  
beside a Negro boy with curlicues  
of marijuana in his hair.

로웰의 나이 마흔에 접어들어, 이상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대통령을 상대로 격렬한 비난을 퍼붓고 난 뒤, 불을 뿜는 양심적 병역기피자로서 법정의 유죄선로를 기다리고 있던 옛날 일들을 회상한다. 그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수감된 웨스트 스트리트 교도소에서 마주친 동료 수감자들을 묘사한다.

일 년 형을 선고 받고  
내 학교 축구장처럼 짧은  
웨스트 스트리트 감옥의 지붕을 산보했다.  
까맣게 엮힌 빨랫줄과  
빛 바랜 카키 색 셋집 사이로 비쳐오는  
허드슨 강을 하루에 한번씩 바라보았다.  
한가로이 거닐며 나는 아브라모위츠와 형이상학을 지껄였다  
황달처럼 섯노란 ('햇볕에 타서 그래요')  
플라이 급 평화주의자,  
채식주의자인 그는  
끈으로 엮은 신발을 신고 땅에 떨어진 과일을 애용하는 것이었다.

Given a year,  
I walked on the roof of the West Street Jail, a short  
enclosure like my school soccer court,  
and saw the Hudson River once a day  
through sooty clothesline entanglements  
and bleaching khaki tenements.  
Strolling, I yammered metaphysics with Abrmowitz,  
a jaundice-yellow ('it's really tan')

and fly-weight pacifist,  
so vegetarian,  
he wore rope shoes and preferred fallen fruit.

로웰은 교도소 생활을 할 당시 너무나도 세상물정을 몰라, “여호와의 증인”도 그곳에서 처음으로 봤다고 한다. 옆에 있는 죄수를 보고 “당신도 양심적 병역기피자요?”라고 묻자, “아니오, 여호와 증인(J.W)이오”라고 답한다.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살인회사(Murder Incorporated)”의 두목 랩키가 선반에 수건을 차곡차곡 개고 있다. 랩키는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보통 죄수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여러 물품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의아하게도 부활절에 사용되는 종려 리본이 성조기와 함께 묶여 있다. 힘도 없고 대머리이고 뇌수술도 받아 바깥세상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랩키는 양 같이 순하다. “고통스러운 재심사”(agonizing reappraisal)에 방해 받지 않은 채 전기의자 사형으로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질 랩키는 “모든 연결이 끊어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허공에 매달린”(hanging like an oasis in his air / of lost connections...) 인물로 그려진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나는 여호와의 증인을  
모르고 있었다. ‘당신 C.O.요?’ 동료 죄수에게 물었더니  
‘아니요. J. W.요’라는 대답이었다.  
그는 ‘병원 주머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티 셔츠를 입은 ‘살인회사’의  
랩키의 등을 손들어 가리켰다.  
선반에 수건을 쌓아놓고 있거나  
휴대용 라디오. 옷장. 장난감 성조기 두 개가  
부활절 종려나무의 리본에 묶여 늘어서 있다.  
축 늘어서, 대머리로, 뇌엽절제 수술을 받은  
그는 양처럼 조용히 배회했다.  
고통스런 재평가가 전기의자에 집중된

그의 마음을 흠어놓지 못했다-  
생각의 갈피를 잃어버린 듯한 태도에  
오아시스처럼 매달린  
전기의자에 집중된 그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았다.

I was so out of things, I'd never heard  
of the Jehovah's witnesses.  
'Are you a C.O.? I asked a fellow jailbird.  
'No,' he answered, 'I'm a J.W.'  
He taught me the 'hospital tuck',  
and pointed out the T-shirted back  
of *Murder Incorporated's* Czar Lepke,  
there piling towels on a rack,  
or dawdling off to his little segregated cell full  
of things forbidden the common man:  
a portable radio, a dresser, two toy American  
flags tied together with a ribbon of Easter palm.  
Flabby, bald, lobotomized,  
he drifted in a sheepish calm,  
where no agonizing reappraisal  
jarred his concentration on the electric chair-  
hanging like an oasis on his air  
of lost connections ...

살인자 랩키가 자신의 독방에 성조기를 비롯해 다른 수감자에게는 금지된 물건들을 가득 쌓아 두고 있는 모습을 통해 로웰은 50년대 미국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 기준을 드러낸다. 로웰은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순응만을 요구하는 현대의 조직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서로의 “관계를 잃어”(lost connections)가고 있으며 로웰 자신도 과거의 이상주의와 결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순응을 요구하는 현재의 정체된 삶에 대

해 카톨릭 반진론자로서 “불을 뿜듯이” “국가와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의 자신의 행동을 냉소적으로 돌아보며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한다. 독방에 수감되어 하루하루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풀 죽은 랩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묘하게도 체제에 순응하며 일상을 삶을 반복하는 중년의 로웰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 시의 초점은 외할아버지처럼 남성의 억압체제의 대표자요, 살인회사의 우두머리인 ‘Czar’라는 칭호가 붙은 랩키에게서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Hobsbaum 89). 그리고 미국 국기를 가진 랩키는 미국을 대표한다. 또 우리는 미국이 랩키처럼 모든 연결된 것이 끊어져 종말로, 아마 원자탄에 의한 종말로 향하여 떠돌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Simpson 89). 그리하여 양심적 병역 기피자, 채식주의자, 뚜쟁이들, 뇌엽절제 수술을 받은 살인회사 대표가 있는 교도소와, 스탠리, 바비, 로웰이 있었던 정신병원이 미국 전체의 축소도가 아닌가 즉 미국은 거대한 교도소 내지 정신병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한다. 1950년대의 미국의 진정체를 맞은 정신 상태를 로웰을 40년대의 감옥살이와 정신병원 생활을 회상하는 자신의 정신상태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Hobsbaum 89). 앨런 윌리엄슨(Alan Williamson)은 「웨스트 스트리트와 랩키의 추억」을 “a great political poem”이라 부르고 있다 (Williamson, 14).

현대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폭력성은 개인의 실존을 위협한다. 로웰의 대표시 가운데 하나인 「스컹크 시간」 (“Skunk Hour”)(LS 90)은 개인의 실존에 대한 로웰의 고민이 폭발적으로 드러난다. 브룩스와 워렌 『시의 이해』 (*Understanding Poetry*)에서 말하듯이 현대시인이라면 당연히 소화시킬 수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로웰은 추하고도 부당한 사실도 시로 승화될 수 있다는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9). 이 시는 단(John Donne), 엘리엇, 테이트(Tate) 등의 시와 마찬가지로 시 속에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와 동시에 로웰은 이 공존 자체를 시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시는 로웰의 긴 인생 탐구의 종착역으로서, 그는 자신의 가족사와 미국의 지옥 같은 상황을 그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의 욕망을 표출함으로써 인생의 탐색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로웰은 노망 든 노파와 파산한 백만장자, 동성연애자와 관음증 증세의 시적 화자가 등장시켜 최초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미국의 풍경을 제시한다. 이어 과거에 대한 회상에서 벗어난 로웰은 산업 기계문명을 상징하는 “튜더풍의”(Tudor) 자동차를 타고 죽음을 암시하는 해골 같은 언덕을 오른다. 타락한 사회에 대한 분노감으로 올라간 언덕에서 그는 준비하게 늘어선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차들을 보게 된다. 비록 관음증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부패한 도덕적 상황이지만, 로웰은 자신의 충격과 절망감을 “내 정신이 이상하다.”(My mind’s not right.)고 토로하고, “내 자신이 지옥이다”(“I myself am hell)라고 말함으로써 희망이 배제된 지옥 같은 현실 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된다. 마침내 로웰은 골고다의 예수처럼 ‘실존적인 밤’(An Existential night)에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죽음의 충동을 느꼈고 결국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계에 서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느 어두운 밤,  
나의 튜더 포드 자동차는 언덕의 해골을 올랐다.  
나는 정사용 차들을 훑쳐보았다. 불이 꺼진 상태였고  
그들은 함께 누워 있었다. 껍데기에 껍데기를 맞대고,  
무덤의 도시의 시렁을 이룬 장소에서 . . .  
내 정신이 이상하다.  
단지 스컹크들만이,  
달빛 속에 한입 물어뜯을 것을 찾는다.  
그들은 메인스트리트를 발바닥으로 행진해 간다.  
하얀 줄무늬, 미친 듯한 빨간 눈,

분필처럼 메마른 트리니테리언 교회의 원재 침탑 아래로  
나는 뒤뜰 계단 꼭대기에서 서서  
풍요로운 공기를 숨쉰다-  
새끼를 한 줄로 거느린 어미 스컹크는 쓰레기통을 뒤진다.  
그녀는 시큼한 크림 통에 췌기머리를 처박고,

타조꼬리를 내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One dark night,  
my Tudor Ford climbed the hill's skull;  
I watched for love-cars. Lights turned down,  
they lay together, hull to hull,  
where the graveyard shelves on the town . . .  
My mind's not right.

only skunks, that search  
in the moonlight for a bite to eat.  
They march on their soles up Main Street:  
white strips, moonstruck eye's red fire  
under the chalk-dry and spar spire  
of the Trinitarian Church.

I stand on top  
of our back steps and breath the rich air-  
a mother skunk with her column of kittens wills the garbage  
pail  
She jabs her wedge-head in a cup  
of our cream, drops her ostrich tail,  
and will not scare.

자살에 충동을 늘 느끼는 로웰은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이 시에 등장한 스컹크와 대조하고 있다. 로웰은 정신적 고통의 대상인 반면 스컹크는 육체적 쾌락에 빠져 있는--'hull to hull'--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 환경에 구속되지 않는--drops her ostrich tail,/and will not scare'-- 당당한 모습을 잊지 않는다. 로웰 또한 광기로 번뜩이는 눈을 가지고 쓰

레기통을 뒤져 먹이를 찾는 스컹크의 모습에서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고 ‘풍요로운 공기’(rich air)를 들이마신다. 이 괴기스런 스컹크의 이미지는 종교와 과학이 대립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부정적인 미국 현실의 삶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로웰의 자기이해의 상징인 것이다. 로웰은 뉴잉글랜드의 역사와 종교에 내재된 도덕적 타락과 사회구조의 병폐를 자신의 위치에서 받아들인다. 즉, 그는 종교와 윤리성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있는 자신을 결코 먹이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스컹크의 이미지로 제시한다.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는, 삶의 에너지로 충만하여 문명화된 메인스트리트를 줄지어 당당히 지나가는 스컹크의 모습은 생명과 죽음, 선과 악 등 이분법적으로 제시되는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제 4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십자가의 성 요한(The Saint of John Cross)과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의 작품과 대조시키면서 시적 화자의 동물적 비애감을 심화시킨다. ‘나 자신이 바로 지옥이다/ 아무도 없다’(I myself am hell/ nobody’s here)라는 표현을 극찬하면서 마크 루드만(Mark Lud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의도에 적합한 핵심적인 시행은 “내 자신이 지옥이다”의 “나 자신”이다. 『인생연구』 속에 등장하는 바비, 스텐리, 아브라모 위츠나 랩키도 아니다. 심지어 그의 삼촌 혹은 그의 숙모, 아버지, 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이다. - 이러한 통찰력은 구체적으로 ‘스컹크 시간’을 훌륭한 시가 되게끔 하고, 『인생연구』가 다른 시선집보다 더 훌륭한 시집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로웰은 때때로 자아와 타자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투사와 과정에 몰두해왔다.

The key line for our purpose is “I myself am hell,” “I Myself” - not, backtrack through the book, Bobbie, Stanley, Abramowits, or Lepke: not even his uncle or his aunt or his father or his mother: “I myself - and it precisely this insight makes ‘Skunk Hour’ a great poem and *Life Studies* a great book rather than a

collection of poems. -Throughout ,Lowell has been involved in a process of projection , where sometimes the borderline between self and other is blurred.(90)

시적 화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상황에서 쓰레기통을 뒤져 신 크림을 먹는 스컹크를 보면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다. 자살과 소외의 공포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스컹크의 생존에의 본능에서 보게 된 그는 삶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그 삶을 수용하려는 전환점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스컹크의 생존은 본능적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완전히 정화된 이상적 존재로서의 상징이 되지는 못한다. 메말라 버린 현대사회에서 인간보다 동물이 더 당당하고 용감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생존해 나아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스컹크가 지닌 삶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자극을 받게 된다. 초라한 동물인 스컹크는 밤 거리에서 새끼를 거느리고 쓰레기통에 머리를 쭈서 박고 신 크림을 훔아 먹는다. 이 강한 생존에의 본능이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징인 반면에 쓰레기통이나 뒤져야 하는 초라한 생존으로 비치는 이중적 모습을 띤다. 이처럼 로웰은 스컹크를 통해 도덕적으로 타락한 미국의 물질주의적 풍토에서 인간이 기댈 수 있는 단순한 본능적 욕망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역사 속에 한 개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 로웰은 보다 성숙한 시각으로 당대 사회의 현실을 조망한다. 「죽은 미합중국 병사들을 위하여」 (“For the Union Dead”)와 「대양 가까이」 (“Near the Ocean”)에서 묘사된 역사적 사건들은 미국의 당시 정치, 사회현실을 보다 과감하게 비판하고 있어 공적 시인의 면모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죽은 미합중국 병사들을 위하여」 (“For the Union Dead”)(FUD 72)는 『인생 연구』에서 「스컹크의 시간」 (“Skunk Hour”)와 더불어 로웰의 문명비판시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시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주제들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경험 영역’(an important area of experience in its own right)으로 다루어지며, 현대 문명 특히 미국의 물

질문명에 대한 분노감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로웰의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잘 나타난다. 동 시대의 삶에 대한 로웰의 현실 인식은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은유적으로 시 속에 형상화되고 있다. “그들은 미합중국에 봉사하고자 모든 것을 포기했다.”(Relinquent Ommia Servare Rem Publicam)라는 부제가 의미하듯이, 로웰은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흑인 무명병사들에 대해 과연 미국은 얼마만한 가치를 부여했는가를 물으면서 인종주의, 자본주의의 갈등, 미국의 남북전쟁의 역사적 의미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오래된 남부 보스턴 수족관은 지금  
눈 덮인 사하라에 서 있다. 깨어진 창문의 판자로 막았다.  
청동 바람개비 대구는 그 비늘을 반쯤 잃어버렸다.  
공기 탱크는 반쯤 말라 버렸다.

한 때 내 코는 수족관 위에서 달팽이처럼 기어갔다;  
내 손은  
움츠러든 유순한 물고기의 코앞에 나오는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따끔따끔 아팠다.

The old South Boston Aquarium stands  
in a Sahara of snow now. Its broken windows are boarded.  
The bronze weathervane cod has lost half its scales.  
The airy tanks are dry.

Once my nose crawled like a snail on the glass;  
my hand tingled  
to burst the bubbles  
drifting from the noses of the cowed, compliant fish.

수족관 유리에 붙은 달팽이처럼 코를 대고 물고기 코에서 나오는 물거

품을 터뜨리려고 한 어린 시절의 모습이 판자로 막은 깨진 유리창과 방향 표시를 잃어버린 청동 풍향계와 말라버린 물탱크가 대조적으로 묘사되면서 황량한 남부 보스톤의 수족관 모습은 현대 문명의 황폐한 정신을 보여준다.

물고기와 파충류가 자라던 “수중 왕궁”에서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미국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 주차장 공사현장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대의 보스톤 공유지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잔디를 파내는 노란 증기 삽이 툭툭거리고 있고, 그 옆으로는 남북전쟁에 참가한 쇼 대령과 흑인 병사들을 조각한 부조가 세워져 있다. 로웰이 바라보는 쇼 대령은 귀족주의적 명분을 위해 앞 뒤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전장으로 뛰어 든 다소 철없고 사려 깊지 않은 영웅상이다.

내 손은 뒤로 뻗다. 나는 아래로 향하는 어둠과 물고기와 파충류가 자라는 왕국을 향해 자꾸 한숨 쉰다.

지난 3월 어느 날 아침,

나는 보스톤 공유지에 새 가치를 박고

아연 도금한 울타리에 기대었다.

그 공유지에 노란 공룡 같은 증기 삽이 툭툭거리고 있었다.

마치 지하세계의 쓰레기를 파내기 위해

진흙과 잔디를 파내는 것처럼

주차지역은 보스톤 심장부의 시민 말뚝처럼 화려하다

오렌지 빛의 띠, 청교도호박 색깔의 대들보는

들썩거리는 주 의회 의사당을 떠받치고

구덩이 너머로 흔들리고,

마치 쇼 대령과 그의 흑이 보병들을

St. Garden의 흔들리는 남북전쟁의 부조 위에 마주한 것처럼

쓰레기 더미 반대쪽에 쪼개진 판자 옆에 세워졌다

My hand draws back. I often sigh still  
for the dark downward and vegetating kingdom  
of the fish and reptile. One morning last March,  
I pressed against the new barbed and galvanized

fence on the Boston Common.

Behind their cage,  
yellow dinosaur steamshovels were grunting  
as they cropped up tons of mush and grass  
to gouge their underworld garage.

Parking spaces luxuriate like civic  
sandpiles in the heart of Boston.

A girdle of orange, Puritan-pumpkin colored girders  
braces the tingling Statehouse,

shaking over the excavations, as it faces Colonel Shaw  
and his bell-cheeked Negro infantry  
on St. Gaudens' shaking Civil War relief,  
propped by a plank splint against the garage's earthquake.

쇼 대령은 남북전쟁 당시 최초로 흑인부대를 지휘했던 백인 장교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힘”(power to choose life and death)을 지닌 군인과 시민의 전형적인 상을 갖춘 인물(a military, a civic and noble image of man)로서 남북전쟁 당시 흑인부대를 지휘하여 흑인 병사들과 함께 도랑에 매장된 인물이다. 당시 미국의 현실은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보다는 전쟁을 상업광고에 이용하고 있고, 쇼 대령이 던져진, 희생과 숭고한 봉사정신을 상징하는 구덩이와는 달리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또 다른 구덩이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도랑은 더 가까이 있다.  
여기에, 지난번 전쟁의 조상들은 없다;  
보일스톤 가에는 상업사진은  
끓어 오르는 히로시마를 나타내고 있다.  
폭발에도 끄떡없는  
“시대의 반석” 모슬러 금고 위의.

The ditch is nearer.  
There are no statues for the last war here;  
on Boylston Street, a commercial photograph  
shows Hiroshima boiling  
over a Mosler Safe, the "Rock of Ages"  
that survived the blast.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에서 급부상하는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그러한 미국이 이제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종차별의 사회적 모순을 여전히 해소시키지 못한 처지이다. 로웰은 매스컴으로 보도되고 있는 “흑인 아이들의 메말라 버린 얼굴들이 풍선처럼 떠오르는 것”(the drained faces of Negro school-children rise like balloons)을 발견하고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여전히 현대 문명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어린 시절 로웰이 물고기 내뿜는 풍성한 거품을 터뜨리기 위해 수족관에 코를 비벼댄 것처럼 현대 인간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고, 물방울 위에서 “축복된 파열”을 기다리는 쇼 대령이 대표하는 가치들과 무관하게, 인간의 편리에 봉사하는 물질문명의 “야만스런 노예근성”(savage servility)에 힘입은 미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로웰은 「일요일 아침 일찍 깨어나」(Waking Early Sunday Morning)(NO 13-20)에서 60년대의 종교, 사회, 정치적 상황을 제시하며

동시에 전쟁으로 점철된 인간역사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로웰에게 역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탐욕, 타락, 고통이 연속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로웰이 맞은 일요일 아침은 태양이 등화관제를 해제하고 날을 밝히는 동안에도 밤의 창조물들-‘vermin’, ‘fieldmouse’, ‘termite’-이 끝없이 움직이는 어두운 세계이다. 어두운 문명에 억압된 시인의 의식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찾고자 한다.

오, 도망치는구나, 치누크 연어처럼  
뛰어오르고 주춤하면서,  
불가능한 바위 위로 전진한다.  
빠가 폭포와 부딪쳐-  
턱에 상처 나고, 살은 허물어져,  
울부짖는 폭포의 열 검음 높이에서 멈춘다.  
그리고 마지막 시도로 정상에 올라,  
알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살다가 그 후에 죽는다.

O to break loose, like the chinook  
Salmon humping and falling back,  
Stone and bone-crashing waterfall -  
Raw-jawed, weak-fleshed there, stopped by ten  
Steps of the roaring ladder, and then  
To clear the top on the last try,  
Alive enough to spawn and die.

현대 보스톤의 종교는 이미 물질의 지배로 인해 신을 상실하고 인간의 광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즉 ‘sad, slight, useless things to calm the mad’에 이르렀다. 뻣뻣한 성경과 단순한 4행시의 찬송가는 예술의 힘으로 부드러워질 수 없는 단순한 형식이지만 과거의 교회는 적어도 평화를

노래하는 어둠을 통제하고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오 성경은 우리가 듣긴 하지만 읽지 못하는  
찬송가 속에서 고통 받고 억압되었다.  
보다 더 민감한 은총이나 예술도 정사각형에서 파 낸  
뾰뾰한 4행시를 달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평화를 노래하고 절망을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정도 어둠을 통제했고,  
영혼을 위한 틈새기를 남겼다.

O Bible chopped and crucified  
in hymns we hear but do not read,  
none of the milder subtleties  
of grace or art will sweeten these  
stiff quatrains shovelled out four-square-  
they sing of peace, and preach despair;  
yet they gave darkness some control,  
and left a loophole for the soul.

하지만 현대는 약간의 희망이나마 제시해 주던 종교가 더 이상 인간에게 어떠한 영혼의 통로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영혼의 통로를 차단당한 현대 세계에는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고 전쟁의 살상이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이미 전쟁은 골리앗이 신의 권위에 대항하여 일으킨 태초부터 과학의 힘을 빌어 개선된 무기로 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에 되풀이되어 왔다. 그래서 전쟁은 인간들이 가진 “성공에 대한 갈망”(the hunger for success)이며, “자기기만”(self-deception)에 지나지 않는다. 로웰은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인간 세계를 ‘진보는 없다’(no advance)라는 말로 요약한다.

로웰의 비관적인 태도는 정치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존슨(Lyndon Baines Johnson) 대통령은 장관들과 열띤 회의를 하고 자유롭게 수영을

하며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그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유령 같은 –“his ghost-written rhetoric”– 존재일 뿐이다. 무기력한 존슨 대통령에 대한 로웰의 비관과 연민의식은 미국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 정치적인 해결 통로마저 차단당한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숭고함은 여름날 소녀와 함께 보내는 어떤 것”(All life’s grandeur is something with a girl in summer.)이라는 구절처럼 자조적인 해결책이다.

행성을 불쌍히 여기라, 모든 즐거움은  
이 달콤한 화산 원뿔로부터 사라졌다.  
작은 전쟁에 뒤이어 작은 전쟁 속에서 죽어갈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평화를-  
마침내 시간의 끝이  
우리의 단조로운 숭고함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어버려 돌고 도는  
유령 같은 지구를 단속할 때까지.

Pity the planet, all joy gone  
from this sweet volcanic cone;  
peace to our children when they fall  
in small war on the heels of small  
war-until the end of time  
to police the earth, a ghost  
orbiting forever lost  
in our monotonous sublime.

희망이 단절된 인간 세계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오히려 그 세계에 대한 연민의 정--Pity the Monsters--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5년 중반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에 개입했다. 로웰은 이 시기의 변화를 잘 인식했던 시인으로서 스스로 “무거운 책임

감”(heavy burden)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백악관에서 거행되는 예술축제 행사에 초대되었지만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고 그 후 팬타곤 행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 정치적 활동을 한다.

...과장된 평화를 향한 열변들-

.....

그때 녹색 연합군 신병들처럼 최초의 Bull Run을 향하여 행진을 하고,

사진사들, 유명인사들, 소녀들이. . .

두려움, 영광, 혼란, 소란 속에 들떠있고

우리의 녹색 군대는 장거리의 녹색 들판 위를 비틀거리며 행진했다,

군신 마르스, 원숭이, 영웅으로 구성되어

신제품 라이플 총과 초록 철모를 한

다른 군대를 만났다.

... amplified harangues for peace-

.....

to see the cigarette match quaking in my fingers,

then to step off like green Union army recruits

for the first Bull Run, sped by photographers,

the notable, the girls . . .fear, glory, chaos, rout...

our green army staggered out on the miles-long green field,

met by the other army, the Martain, the ape, the hero,

his new-fangled rifle, his green new steel helmet.

손 맞잡고 팬타곤 행진에 참여한 군중들의 모습은 두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사뭇 혼란스럽게 그려져 있다. 시위 군중들은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신병들의 모습으로 군신처럼 위세 당당하고 영웅처럼 시위진압 복장을 한 군인들과 대조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60년대의 급변하는 정치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변혁에 공감을 하지만 변혁이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다. 펜타곤의 행진의 진의를 인식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삶이 내포하고 있는 딜레마에 속해 있음을 시적 비전으로 제시한다.

『역사』는 자아와 경험에 대한 변화를 보인다. 즉 로웰은 사적인 시와 공적인 시를 분리하기 위해 시적 관점을 권력으로 축소시켜 자신과 세계를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복잡성을 피하려 한다. 『역사』는 연대기적 시간 순서에 의하여 인간 행동을 수용하고 이해한다. 공적인 역사는 새롭게 구성할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로웰은 「역사」(“History”)(H 24)에서 역사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로웰의 역사의식은 현실 비판과 풍자의 태도를 취하면서, 이상적 세계에 대한 희망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구성 했다. 로웰 자신은 결코 웅대한 정치적 이상이나 역사적 서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지만 그가 구현한 예술의 수사적 장치와 구조에서 그의 시는 다른 시들과는 차별이 된다. 로웰은 시를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고 현실의 모방도 아닌 삶 그 자체가 시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움켜쥐고 가까이에서 만질 수 있는 -  
이 곳에서 역사는 살아 남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너무나 음산하고 소름 끼친다,  
글쓰기와는 달리,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

한 아이가 그것에 얼굴을 내어 준다. 두 개의 구멍, 두 개의 구멍,  
나의 눈, 나의 입, 그 사이에 해골의 크기가 없다 -

오 내 얼굴에는 아침의 은빛 이슬로 젖은  
공포스러운 순수가 담겨 있다.

History has to live with what was here,  
Clutching and close to fumbling all we had -

Unlike writing, life never finishes.  
 Abel was finished, death is not remote,  
 .....  
 A child could give it a face: two holes, two holes,  
 My eyes, my mouth, between them a skull's no-nose -  
 O there's a terrifying innocence in my face  
 Drenched

로웰은 역사 기술에 있어서의 생생한 진실을 갈망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포착하고 싶지만 그것 역시 역사재현의 허구에 갇히게 됨을 스스로 인식한다. 이 시에서 그는 비전을 제시해서 드러내기 보다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그려낸다. 삶이 갖는 부조리와 모순을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 시킨다.

『역사』 시집에서 역사가 갖는 해방과 진보의 서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견지하면서도 역사상의 파편화된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는 역사의 힘에 집착한다. 공적인 역사가 서술한 사건을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하면서도 사적인 삶의 모습 역시 그대로 투영하여 애쓴다. 그래서 로웰이 편집한 역사의 순간들은 일반적인 역사와는 차이를 지닌다. 전통적인 역사가 중요한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대 구분을 하고 정신 사조, 문화, 정치, 경제를 묶어 다루는데 반하여, 로웰은 그의 사유의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역사를 구성한다. 그의 시가 허구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자의식적 성찰과 시적 기법은 포스트모더니즘 시의 경향을 보여 준다.

미국 사회는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서로 어우러져 형성되는 세계적인 문화적 충동과의 융합에서도 존재한다. 핵전쟁의 공포와 군사력의 위협과 산업과 자본의 힘이 연계되어 절대자인 신에게서 느껴지는 경외와는 상반되는 오히려 망상과 히스테리에 가까운 열정과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은 신경질적인 미국 사회의 자본의 거대한 흐름 및 생산과 소비의 과잉에서 야기되는 대중의 정신분열적인 반응의 징후를 지적하기도 한다(177).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보여진 제 3장의 시는 로웰 자신이 미국의 정

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정신 병원에 수감되었던 것처럼 정신병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속시킨 미국 정부의 처사 역사 정신병적 징후를 지닌 측면이 있다고 표현된다. 정치적 권력이 갖는 야수성과 독단성은 정신병적 편집증과 과대망상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암울한 힘에 대해 혐오와 염증을 느끼면서 권력자들과 상반되는 입장에 처한 인물들에게 독자는 공감을 느낀다. 미국이 싫어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에서 버림받은 하류층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힘들고 어두운 면을 투시한다. 그 어두운 면이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로웰은 자신의 유년시절과 가족, 부부 관계 그리고 정신병원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개인적 경험을 고백적 문체로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당대의 현실과 연결시키려 했다. 개인의 경험 속에 미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노출시킴으로써 그의 시는 문명비판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인생연구』에서 가족과 자신의 삶을 주로 취급한 제4부의 시들이 본 논문의 2장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시 「테버로 윈즈로 삼촌과의 마지막 오후」, 「던바턴」 그리고 「조부모님」은 그가 가장 순수했던 유년기를 보여주는 시들이다. 이 시들과 「조부모님」에서 로웰은 자신의 아버지라 여기고 싶을 만큼 친밀감을 느꼈던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그의 죽음에 충격과 상실감을 드러낸다.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포함하여 그의 개인적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시 「로웰 중령」, 「베버리 파암즈의 마지막 날들」, 「방패가」는 오랜 해군 생활로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없었으며, 어머니의 요구로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오랜 아버지의 부재, 부모의 불화는 로웰의 유년 시절에 정신적 외상을 남기고 그가 청년기에 겪게 되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부모의 불화로부터 그가 얼마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었는지는 또 다른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해 해명될 문제이다.

제 3장에서 검토된 시들은 로웰의 고백시가 개인적인 삶의 틀에서만 머물지 않고, 당대의 미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과 연관됨으로써 문명비판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웨스트 스트리트와 랩키의 추억」, 「스핑크의 시간」, 「죽은 미합중국 병사를 위하여」에서 로웰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당대 사회의 현실을 조망한다. 이 시들에서 보여지는 미국 역사와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로웰의 철저한 탐색은

근본적으로는 현대 미국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인생 연구』를 중심으로 로웰의 시를 단순히 시인의 사적인 고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그가 살았던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독자에게 동시에 일깨워주려 노력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로웰 시의 고백적인 면모를 살펴보면서도, 그가 시속에서 당대의 미국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문명비판적 성향의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인생 연구』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할 수 있었다. 로웰의 삶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가 겪었던 고통과 갈등은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성취해 나가려는 끊임없는 자아의 실현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개인의 삶이 언제나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용 문헌

- 김정규. 「로버트 로웰의 인생연구에 나타난 희극적 상황」 『영어영문학 연구』 . 51.1 (2009):131-150.
- 이영걸. 『英美時와 韓國時』 서울: 문학예술사, 1981.
- Brooks, Cleanth and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4th ed. New York: Holt, 1976.
- Cosgrave, Patrick. *The Public Poetry of Robert Lowell*. London: Victor Gollanz Ltd. 1970.
- Ellmann, Richard and Robert O'Clair.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Poetry*. New York: Norton, 1973.
- Fein, Richard J. *Robert Lowell*. Boston: Twayne, 1979.
- Heymann, David. *America Aristocracy*.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80.
- Jameson, Fredric.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 Durham; Duke UP, 1994.
- Kramer, Lawrence. "Freud and the Skunks: Genre and Language in Life Studies" *Robert Lowell: Essays on the Poetry*. Steven Axelrod and Helen Deese. Ed. New York: Cambridge UP, 1986.
- Lowell, Robert. *Life Studie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9.
- . *For the Union Dead*.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67.
- . *Near The Ocea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0.
- . *History*.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3.
- . *Selected Poems*.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6.
- . *Robert Lowell: Collected Prose*, Ed. Robert Giroux.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87.
- Malkoff, Karl. *Crowell's Handbook of Contemporary American*

- Poetry*. New York: Thomas Y. Crowell Company, 1973.
- Rosenthal, M. L. "Poetry as Confession". *Critics on Robert Lowell*, Allen and Unwin. Ed. London: Johathan Price. Miami UP, 1972.
- Rudman, Mark. Robert Lowell. *An Introduction to the Poetry*. New York: Columbia UP, 1983.
- Simpson, Louis. *Studies of Dylan Thoman, Allen Ginsberg, Sylvia Plath and Robert Lowell*, London: Macmillan, 1978.
- Spears, Monroe K. *American Ambitions*. Baltimore: John Hopkins UP, 1987.
- Williamson, Alan. *Pity the Monsters: The Political Vision of Robert Lowell*. New Haven: Yale UP, 1974.

